

# AI작곡가와 음악 크리에이터의 협업!

## 디지털 싱글 정식 '음원' 출시

- EvoM 탑재한 '뮤지아'와 실용음악과 대학생 '소울'의 공동 작곡 음원 「스트레인저」탄생
- 12월 16일(금) 낮 12시 이후 멜론 및 국내 모든 음악 플랫폼에서 감상 가능



▲ 음악 크리에이터 '소울'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 AI대학원의 안창욱 교수가 개발한 AI 작곡가 '이봄(EvoM)'과 음악 크리에이터 '소울(SOUL)'이 공동 작업한 음원이 출시됐다.

\* 이봄(EvoM, Evolutionary Music): 2016년 안창욱 교수팀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AI 작곡가. 인간 작곡가의 뇌 반응을 모사해 △진화알고리즘 △딥러닝 △작곡이론 △작곡 노하우 등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동작하는 작곡 인공지능이다.

기획사에 속한 가수나 연습생이 인공지능과의 협업을 통해 음원을 발매하거나 가수로 데뷔하는 사례는 종종 있었으나, 이번처럼 일반인이 AI 작곡가와 함께 곡을 작곡해 음원을 낸 것은 최초이다.

소울의 데뷔 싱글 곡인 '스트레인저(Stranger)'는 12월 16일(금) 낮 12시부터 '멜론' 등 국내 음악 플랫폼에서 들을 수 있다. 뮤직비디오는 같은 날 오후에 MUSIA 채널 ([www.youtube.com/@MusiaMusic](http://www.youtube.com/@MusiaMusic))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이봄'과 함께 음원을 출시한 주인공 '소울'은 현재 실용음악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으로 어릴 때부터 가수의 꿈을 키워 왔다.

'소울'은 예명으로 '음악에 마음을 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번 음원 발매를 계기로 HIS 엔터테인먼트의 연습생 계약을 앞두고 있다.

음원으로 공개되는 '스트레인저(Stranger)'는 AI작곡 플러그인 '뮤지아(MUSIA)'와 소울 본인이 공동 작곡한 곡을 바탕으로 탄생했으며,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음악을 작업한 HIS 엔터테인먼트의 작곡팀이 프로듀싱에 참여했다.



▲ Stranger 앨범 자켓

'뮤지아'는 안창욱 교수가 이끌고 있는 AI음악 스타트업 '크리에이티브마인드 (CreativeMind)'에서 작곡AI '이봄'을 탑재하여 선보인 누구나 쉽고 빠르게 음악을 작곡할 수 있도록 돕는 음악 작곡 서비스이다.

'뮤지아'를 이용하면 사용자 입력이나 AI 추천코드를 바탕으로 곡의 뼈대가 되는 멜로디와 반주를 생성한 후, 사용자가 마음에 드는 멜로디와 반주에 간단한 악기 및 사운드 터치업 작업을 통해 음악 지식이 없는 일반인 누구라도 단 5분 정도면 완성곡을 만들 수 있다.

'소울'은 "이번 작업을 진행하기 전까지 AI작곡가와 협업한다는 것이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며 "AI작곡가 '이봄'은 내게 이방인(stranger) 같은 존재로 이 모든 낯선 상황에 대한 느낌을 '이봄'과 함께 곡에 담고자 노력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재미가 잘 맞았다"고 말했다.

안창욱 교수는 "이번 소울의 데뷔 곡 '스트레인저' 제작은 AI작곡가와 인간의 실제적인 협업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로, 향후 다가올 초메타버스 시대의 거대 콘텐츠 시장에서 AI기반 1인 창·제작 서비스 시대를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이봄'은 일반인 누구라도 자신만의 음악을 올인원(all-in-one) 형태로 작곡에서부터 믹싱·마스터링까지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AI프로듀서'로 고도화를 진행 중이다.